

## 영들의 테스트

예레미야 28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신약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할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관하여 서로 동의하지 않거나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분별함에 우리들이 서로 갈등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도 영의 확인과 분별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구약에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문제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이 등장 한다. 구약의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 각각 하나님의 뜻과 활동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보고 있던 반대편의 선지자들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다.<sup>1</sup>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전형적인 충돌의 기록으로 불리우는 예레미야 28 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말씀과 가짜 말씀을 가려내는 기준과 분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약의 다른 어느 부분 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본문의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고대 중동지역의 지역적인 중요한 격변중의 하나를 지나던 시절이었다. 앗시리아가 쇠퇴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던 때로, 두가지 중요한 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전 598 년과 587 년이다. 바벨론이 유대를 두번 침공하는데, 하나는 598 년이고 다시 한번 587 년의 유대를 초토화 시키는 침공인데, 그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는 해 이었다. 예레미야 28 장은 이 두 시점의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로, 주전 598 년의 바벨론의 첫번 침공 후의 일이다. 유대백성들의 첫번 포로 송환은 이미 끝났고, 예레미야 28 장의 논란은 얼마나 오래 이 포로생활이 계속될 것이며, 얼마나 오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힘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다.<sup>2</sup>

문학적인 상황도 또한 중요한데 그것은 27 장과 28 장이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이다. 27 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가 쓰는 멍에와 줄을 그의 목에 걸게되는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유대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상징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주장하기를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는 것은 느브갓네살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7 장의 나머지는 다음의 4 가지 점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예레미야의 긴 연설이다.<sup>3</sup>

1.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2.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도이므로 여러국가들에 의하여 도전 받거나 거부될 수 없는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더 나쁜 재앙, 곧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4. 거짓 선지자들이 또다른 대안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을 허락치 말라: 제국에 대한 도전이나 기적적인 구조는 망상이며 전적인 부인이므로, 거부하라. 예레미야도 포로생활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선지자들과 의견에 동의 하겠지만, 포로생활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는 회복이 있을 것을 믿었지만 그것은 금방 오거나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대의 장래에 변화가 있기전에 사태들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회복은 포로생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심판이 없는 장래의 예언은 거짓말이다.<sup>4</sup>

28 장은 이러한 논쟁을 보여주는 극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양쪽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구약에 나오는 서로 상반되는 선지자들의 가장 직접적이며 극적인 대면이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안들을 서로 제시하므로, 이들의 대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함에 서로 상충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하게끔 한다. 이들의 대면은 아주 공적인 장소의 - 성전 마당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멩에를 아직도 메고 있었다.

## 스토리 읽기

28 장의 극적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해설자 역할을 맡기시고,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의 대화를 듣는 백성의 임무를 맡기십시오.

##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첫번 인상: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질문들이 떠오르는가?
- \* 만약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 두가지 상반된 예언에 관하여 당신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 \* 주의: 두 선지자는 많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사점들을 발견 하십니까?
- \* 본문이 하나냐의 성품이나 그가 관계를 맺고있는 것에 대하여 공격하지 않음을 주의해 보기 바랍니다. 그는 정당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분간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냐가 위험한 예언을 하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의 왕 이었던 시드기야나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야긴(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야의 전임 왕)이 곧 돌아오며 바벨론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단언한 것처럼 하나냐가 28 장이 끝나기 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sup>5</sup>

- \* 당신은 6 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당신은 그의 말의 어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멍하니 있었을까, 빈정 거렸을까? 조소했을까? 괴로와 했을까? 그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도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란다고 하였을까? 본문을 어떻게 읽는가?
- \* 11 절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는 예레미야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예언을 분간하는 어떤 제안이나 기본적 기준을 제공하는가? 어떻게 진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간하는가?

여러분의 토의에서 다룰만한 두가지가 사항:

예언적 전통/계승된 전통: 예전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예언은 은혜의 예언이 아닌 심판의 예언이므로, 하나냐의 예언은 보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주류에 대항하는 예언을 했으며, 보통 예언자들이 속성적으로 하는 말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 그는 언약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이것은 결코 잘못되지 않은 예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과거의 예언자들은 구원과 평화의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냐에게 영향을 끼쳤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고싶은 제안은 “우리가 계속하여 성경의 예언들을 읽고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의 시대에 참된 예언적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예언이 실현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전형적인 말씀인 신명기 18:21-22 을 보라. 그러나, 예레미야 26:18-19 에 있는 것 처럼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도 확증이 되지 못한다: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였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할” 수 있다. 신명기는 또한 거짓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신명기 13:1-5 을 보면, 예언에 관하여 좀더 확실한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기 말라”).

- \* 이러한 기준들은 도움이 되는가?
- \* 당신은 본문을 통하여 예언자의 분별에 관하여 다른 통찰이나 제안이나 기준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 \* 주석가 John Bracke 의 인용된 설명(아래)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응답을 토의해 보도록 하라.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갈등의 근본을 이해함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레미야 28 장에 나오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갈등을 목격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각각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8 장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듣기 쉽고 듣기 원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오히려, “자고로”(8 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와 여러나라들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전쟁, 기근, 질병’ 같은 불쾌하고 불안한 예언을 하는 성향들이 있다. 고대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확신에 더 끌리곤 한다. 예레미야 28 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있는 이 세상을 혼란케하며 끝을 낼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혹독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 \* 예레미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신학과 정치의 관계성은 놀랄만하다. 다음의 두 주석가 Patrick D. Miller 와 Walter Brueggemann 의 인용문을 통하여 이 관계성을 생각하고 대답을 논의해 보도록 하라.

“신학과 정치는 다시한번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서로 결합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은 결국 사람들과 국가들의 사건들이며 동맹 국가들의 정치와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결정과 성향, 선과 악으로 가득찬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이루는 상황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으로 공급 받는 상황이다. 인간 공동체의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와 어느 정도는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 나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항상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수 있으며, 단순히 인간을 부를 때 악이라고 부를수 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나라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일을 하실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Patrick D. Miller)<sup>8</sup>

“예레미야서에서 신학적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갖거나 정확한 인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과정과 완전하게 일관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과 함께, 그리고 바벨론의 아래에서 일하신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반대자의 거짓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으려는 것이었다.” (Walter Brueggemann)<sup>9</sup>

- \* 당신은 이 본문과 현재 미국장로교가 거치고 있는 분별의 노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이 이 본문을 토의하는 가운데 떠올랐는가? 남아있는 질문들은 어떤 것인가?

---

<sup>1</sup> Walter Brueggemann,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8), p. 247

<sup>2</sup> Brueggemann, p. 241.

<sup>3</sup> Patrick D. Miller, “Jeremiah,”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 (Nashville: Abingdon, 2001), pp. 782-83.

<sup>4</sup> Brueggemann, p. 249.

<sup>5</sup> Robert P. Carroll,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and London: SCM, 1986).

<sup>6</sup> Miller, p. 788.

<sup>7</sup> italics mine. John M. Bracke, *Jeremiah 1-29*,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pp. 219-20.

<sup>8</sup> Miller, p. 787.

<sup>9</sup> Brueggemann, p. 232.